

# 1만5천여 성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26일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컨퍼런스 2007,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 하에 약 1만 5천명(해외 성도 500여 명 포함)이 모여 대규모 복음 전파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한국복음서원, 로고스코리아, 성경진리사역원(이하 '주최 측'이라 표기함)이 주최하는 것이다.

주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실내 체육관 복음집회 후에 약 만 여명이 가두 행진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진코스는 실내 체육관에서부터 코엑스까지 약 2km이며, 한국전력 앞 광장에서 해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부분 가두 행진은 불만이나 요구조건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가두 행진은 아주 평화적이고 특별하게 진행된다.

가두 행진은 복음의 영을 회복하는 의미를 담고 진행되며 행렬 중간 중간에서 크고 작은 복음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도덕을 사랑하자"는 표어를 통해 복음전파를 선포한다. 뿐만 아니라 복음행진 기간 동안 이번 행사의 주제



성서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

## 26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컨퍼런스 선언문 발표하고 복음전파 거리행진

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도 반복해서 선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제 아래서 다음의 일곱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된 선언문 내용을 보면 이번 행사의 주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구호는 아니다. 멀리는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을 외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었다. 주최 측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오하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그런 가운데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근본 신앙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요소들 중 하나임을 지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다. 따라서 성경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정도까지 성경을 신뢰해야 한다.

둘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자는 제안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 왜 이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 성별된 근본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성도들 중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5%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실천에 옮기고 또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함께 운동할 친구를 만들라고 조언한다. 같은 원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어서 읽자는 것이다.

셋째, 성경은 연구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이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다(마: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많은데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의 힘으로 사는 체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섭취하고 소화하여 성경의 말씀에 따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대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일년에 일독하는 성경읽기표를 나눠주고, 마

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담긴 포켓 성경을 선물로 준다고 한다. 모든 믿는 이들은 누구나 각지에서 적절한 숫자의 그룹을 형성하여 규칙적으로 함께 성경을 읽도록 도울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경 공부 모임'의 주된 초점은 그 모임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와 친지들,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ECPA(복음주의 기독교 출판 연합회)의 정회원이자 워치만 니와 윌트니스 리의 책자만을 전적으로 출판하는 'Living Stream Ministry(LSM)'의 출판물을 한글로 번역 소개하는 곳이다. 로고스코리아는 지난 20세기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성경 진리 중에서 엄선된 소중한 진리들을 담은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는 문서선교기관이다. 성경진리사역원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성격을 훈련하여 유용한 복음전파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 행사 후반부 큰 거리서 복음 캠페인

### 코엑스 한국전력앞까지 2km

이번 행사 후반부에는 복음 대행진이 예정되어 있다. 여러 사람이 큰 거리에서 행진 한번 한다고 해서 과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복음화율은 2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인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선교학적으로 '사회 복음화 비율이 20%를 넘게 되면 불신자들과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한다'는 이론이 있다. 오이코스 코리아 대표 이상만 목사는 "현재는 완전한 하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전도의 효과가 없는 시대"라고 말한 바 있다.

주최 측도 이런 행사를 통해 당장 복음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행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복음의 영을 분발시킴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의 전

체 인구 가운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생활 가운데서 불신자들에게 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목표는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히 주최 측은 이번 행사의 주된 목표가 일부 성직자들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한 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25%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75%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복음 전파를 강조하지만, 불신자들에 대한 복음전파보다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오는 '교회 바꾸기' 또는 '수평이동'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표는 건전하며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 잠실에서 만남시다

26일, 실내체육관서 컨퍼런스

## - 선언문 -

1.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것임을 선언한다.
3.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영이 있음을 선언한다.
4.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모든 일들의 해답임을 선언한다.
5. 우리는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도록 부름 받았음을 선언한다.
6.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온전하게 되도록 정해졌음을 선언한다.
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축복할 것임을 선언한다.



성도들이 거리에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